

진북연합신문

2010년 3월 29일 월요일 제 1179호

익산시, 여성친화도시 1주년 세미나

‘성공과 과제’ 주제 시민 등 150여명 참석



익산시가 여성친화도시 지정 1주년을 맞아 지난 26일 원광대 송산기념관에서 ‘성공과 과제’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익산시가 여성친화도시 지정 1주년을 맞아 지난 26일 원광대 송산기념관에서 ‘성공과 과제’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여성친화도시 지정 1주년 기념세미나에는 여성가족부, 시민, 공무원, 각 자치단체 관계자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주제발표를 나선 이미원 대구경북연구원 박사는 “1년간 의미 있는 성과는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에 성 주류화 정책을 촉구하는

결정적인 계기를 만들어 중앙정부에 전달, 지원 체계를 구축한 것과 주민 인식 확산이라는 구체적인 실행 노력이다”고 발표했다. 또한 추진체계의 정비 및 추진 성과관리, 민·관·산·학간 협력체계 구축 등을 발전적 지속과제로 제시했다.

합동 토론에서 젠더앤리더십 김양희 대표는 “여성의 특수한 삶의 현실에서 비롯되는 요구를 반영하되 성별 고정관념이나 전통적인 성 역할 고정관념을 강화하지 않도록 접

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대한민국 제1호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된 익산시는 지난 1년간 다양한 여친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하며 여성과 남성의 차이에 따른 불편을 개선해 시민 모두가 행복한 도시 건설에 주력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시는 여성화장실 확충, 여성우선 주차구역, 여성친화시범거리 조성사업 등 여성을 위한 다양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 /익산=정성현기자

全羅日報

2010년 3월 29일 월요일

익산시 여성친화도시 지정 1주년 세미나

“물리적 개선 집중보단 삶의 질 향상이 더 중요”

익산시가 여성친화도시 지정 1주년을 맞아 26일 '여성친화도시 지정 1년의 성과와 과제'란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원광대 송산기념관에서 열린 이날 세미나에는 여성가족부와 각 자치단체 관계자, 시민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

세미나 주제발표에 나선 이미원 대구 경북연구원 박사는 “지난 1년간 의미 있는 성과는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에 성 주류화 정책을 촉구하는 결정적인 계기를 만들었다는 것”이라며 “기초자치단체의 요구가 중앙정부에 전달되도록 지원 체계를 구축한 것과 주민 인식 확산이라는 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 박사는 지속과제로 여성친화도시 추진체계의 정비 및 성과관리, 민·관·산·학간 협력체계 구축 등을 제시했다.

이어 걷고싶은도시만들기시민연대 김은희 사무국장은 “여성친화도시는 그동안 배제되어있던 여성들을 도시정책의 적극적 참여자로 전환시키려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공간 소비자이자, 공간 생산자로서의 주체의 역할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평가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젠더앤티더십 김양희 대표는 토론에서 “여성친화도시를 추진하면서 가장

세심하게 신경을 써야 하는 부분이 여성의 특수한 삶의 현실에서 비롯되는 요구를 반영하되 성별 고정관념이나 전통적인 성 역할 고정관념을 강화하지 않도록 접근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한국여성평등교육진흥원 전길양 부장은 “익산시의 여성친화도시 정책이 도시 공간의 물리적 개선에만 집중된 것이 아니라 도시 생활 전반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평가받기를 바란다”며, “하드웨어 구축이나 일회성 단기 사업이 아닌 지속가능한 사업으로 개발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전북발전연구원 장성화 팀장은 “여성친화도시, 여친공간은 시설물의 정비나 확충과 같은 하드웨어의 정비가 아니라 소프트웨어 즉, 여성을 위한 다양한 도시정책 프로그램을 통해서 나타나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대한민국 제1호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된 익산시는 지난 1년간 다양한 여성친화적 사업들을 추진했다.

여성화장실 확충, 여성우선 주차구역 지정, 여성친화 시범거리 조성사업 등 하드웨어 프로그램과 함께 임신부 2080 건강관리 서비스, 농촌여성 권익향상사업, 태교음악회 등 여성을 위한 다양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

/익산=소문관기자·mk7962@

전북중앙신문

2010년 3월 29일 월요일

지역 소식

여성친화도시 지정 1주년 세미나

‘여성친화도시 지정 1주년 기념 세미나’가 26일 오후 익산 원광대학교 숭산 기념관에서 시 관계자, 시민, 시민단체 및 학계 인사 등 모두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익산시가 주관한 이날 행사는 전국 최초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된 이후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개선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 이 자리에서 대구경북연구원 이미원 박사는 주제 발표를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중앙 정부에 성 주류화 정책을 촉구하는 결정적인 계기를 만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지자체의 요구가 중앙 정부에 전달돼 지원 체계를 구축한 것도 성과”라고 평가한 뒤, 추진체계 정비 및 성과 관리, 민·관·산·학간 협력체계 구축 등을 발전적 지속 과제로 제시했다. /익산=문성용기자

여성친화도시 지정 1주년 기념 세미나

3월 26일, “지속가능한 사업 개발 필요”

익산시 26일 여성친화도시 지정 1주년을 맞아 ‘여성친화도시 지정 1년의 성과와 과제’란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오후 원광대 송산기념관에서 열린 세미나에는 여성가족부, 시민, 공무원, 각 자치단체 관계자 150여명이 참석했다.

주제발표를 나선 이미원 대구경북연구원 박사는 “1년간 의미 있는 성과는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에 여성 주류화 정책을 촉구하는 결정적인 계기를 만들어 기초자치단체의 요구가 중앙정부에 전달되어 지원 체계를 구축한 것과 주민 인식 확산이라는 구체적인 실행 노력 등”이라고 말했다.

또 추진체계의 정비 및 추진 성과관리, 민.관.산.학간 협력체계 구축 등을 발전적 지속과제로 제시했다.

김은희 권고싶은도시만들기시민연대 사무국장은 “여성친화도시는 그동안 배제되어있던 여성들을 도시정책의 적극적 참여자로 전환시키려는 노력이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공간 소비자이자 공간 생산자로서의 주체의 역할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평가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젠더앤리더십 김양희 대표는 토론에서 “여성친화도시를 추진하면서 가장 세심하게 신경을 써야 하는 부분이 여성의 특수한 삶의 현실에서 비롯되는 요구를 반영하되 성별 고정관념이나 전통적인 성 역할 고정관념을 강화하지 않도록 접근하는 것”이라 했다.

이날 토론에 참여한 한국여성평등교육진흥원 전길양 부장은 “앞으로도 익산시 여성친화도시 정책이 도시 공간의 물리적 개선에만 집중된 것이 아니라 도시 생활 전반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평가받기를 바라며, 이를 위해서는 많은 사업이 하드웨어 구축이나 일회성 단기 사업이 아닌 지속가능한 사업으로 개발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전북발전연구원 장성화 팀장은 “여성친화도시, 여친공간은 시설물의 정비나 확충과 같은 하드웨어의 정비가 아니라 소프트웨어 즉, 여성을 위한 다양한 도시 정책 프로그램을 통해서 나타나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대한민국 제1호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된 익산시는 지난 1년간 다양한 여친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하며 ‘여성과 남성의 차이에 따른 불편을 개선해 남녀 모두가 행복한 도시’를 만들어 왔다.

특히 여성화장실 확충, 여성우선 주차구역, 여성친화 시범거리 조성사업 등 하드웨어 프로그램과 함께 임신부 280건강관리 서비스, 농촌여성 권익향상사업, 태교음악회 등 여성을 위한 다양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 /박정훈 기자



“여성주류화 정책 지원체계 성과”

이미원 대구경북연구원 박사 밝혀

여성친화도시 1주 세미나 성황

익산시는 지난 26일 여성친화도시 지정 1주년을 맞아 '여성친화 도시 지정 1년의 성과와 과제'란 주제로 세미나(사진)를 개최했다. 이날 오후 원광대 송산기념관에서 열린 세미나에는 여성가족부, 시민, 공무원, 각 자치단체 관계자 150여 명이 참석했다.

주제 발표에 나선 이미원 대구경북연구원 박사는 “1년 간 의미 있는 성과는 지자체의 여성 주류화 정책 요구가 중앙정부에 전달돼 지원 체계를 구축한 것과 주민 인식확산이라는 구체적인 실행 노력 등”이라고 말했다.

또 추진체계의 정비 및 추진 성과 관리, 민·관·산·학간 협력체계 구축 등을 발전적 지속 과제로 제시했다.

김은희 견고싶은도시만들기시민연대 사무국장은 “여성친화도시는 그동안 배제되어있던 여성들을 도시정책의 적극적 참여자로 전환시키려는 노력이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공간 소비자이자 공간 생산자로서의 주체의 역할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평가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젠더앤티더십 김양희 대표는 토론에서 “여성친화도시를 추진하면서 가장 세심하게 신경을 써야 하는 부분이 여성의 특수한 삶의 현실에서 비롯되는 요구를 반영하되 성별 고정관념이나 전통적인 성 역할 고정관념을 강화하지 않도록 접근하는 것”이라 했다.

전북발전연구원 장성화 팀장은 “여성친화도시, 여친공간은 시설물의 정비나 확충과 같은 하드웨어의 정비가 아니라 소프트웨어 즉, 여성을 위한 다양한 도시정책 프로그램을 통해서 나타나야 한다”고 말했다.

/정복규 기자

전북도민일보

2010년 3월 29일 월요일

“여친도시, 이젠 소프트웨어다”

익산시, ‘여성친화도시성과와 과제’ 세미나 개최

“여성친화도시 지정은 그동안 배제돼 있던 여성을 도시정책의 적극적 참여자로 전환시키려는 노력과 함께 여성이 공간 소비자이자 공간 생산자로서의 주체적 역할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평가받아야 한다.”

김은희 권고싶은도시만들기도시연대 사무국장은 익산시가 여성친화도시 지정 1주년을 맞아 실시한 ‘여친도시성과와 과제’란 주제 세미나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지난 26일 오후 원광대 송산기념관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여성가족부·시민·공무원·자치단체 관계자 등 150여명은 제1호 여성친화도시 지정에 대해 긍정적 주장을 펴는 한편 하드웨어보다 여성을 위한 정책 등 소프트웨어 개발에 주력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경북연구원 이미원 박사는 “지자체가 중앙정부에 성 주류화 정책을 촉구하는 결정적인 계기를 만들어 기초자치단체의 요구가 중앙정부에 전달돼 지원 체계를 구축했고 주민인식 확산이라는 구체적인 실행 노력을 1년간 의미 있는 성과로 볼 수 있다”라고 언급했다. 그는 추진체계의 정비 및 추진 성과관리, 민·관·산·학간 협

력체계 구축 등을 발전적 지속과제로 제시했다.

참석자들은 또 당부의 말도 잊지 않았다. 젠더앤리더십 김양희 대표는 “여성친화도시를 추진하면서 가장 세심하게 신경을 써야 하는 부분은 여성의 특수한 삶의 현실에서 비롯되는 요구를 반영하되 성별 고정관념이나 전통적인 성 역할 고정관념을 강화하지 않도록 접근하는 것이다”라고 조언했다.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전길양 부장은 “앞으로도 익산시 여성친화도시 정책이 도시 공간의 물리적 개선에만 집중되지 않고 도시 생활 전반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평가받기를 바란다”라며 “이를 위해서는 많은 사업이 하드웨어 구축이나 일회성 단기사업이 아닌 지속가능한 사업으로 개발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전북발전연구원 장성화 팀장은 또 “여성친화도시·여친공간은 시설물의 정비나 확충과 같은 하드웨어의 정비보다 소프트웨어 즉, 여성을 위한 다양한 도시정책 프로그램을 통해서 나타나야 한다”라고 말했다.

익산=소인섭기자 iss0@

전북매일신문

2010년 3월 29일 (음 2월 14일) 월요일

“여성이 행복한 그날까지”

지속가능 사업 개발, 민·관·산·학간 협력체계 구축 제시

익산 여성친화도시 지정 1년

익산시는 26일 여성친화도시 지정 1주년을 맞아 ‘여성친화도시 지정 1년의 성과와 과제’란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오후 원광대 송산기념관에서 열린 세미나에는 여성가족부, 시민, 공무원, 각 자치단체 관계자 150여명이 참석했다.

주제발표를 나선 이미원 대구경북연구원 박사는 “1년간 의미 있는 성과는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에 성 주류화 정책을 촉구하는 결정적인 계기를 만들어 기초자치단체의 요구가 중앙정부에 전달되어 지원체계를 구축한 것과 주민 인식 확산이라는 구체적인 실행 노력 등”이라고 말했다.

또 추진체계의 정비 및 추진 성과관리, 민·관·산·학간 협력체계 구축 등을 발전적 지속과제로 제시했다.

김은희 걷고싶은도시만들기시민연대 사무국장은 “여성친화도시는 그동안 배제되어있던 여성들을 도시정책의 적극적 참여자로 전환시키려는 노력이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공간 소비자이자 공간생산자로서의 주체의 역할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평가받아야 한다고



26일 원광대 송산기념관에서 열린 ‘여성친화도시 지정 1년의 성과와 과제’란 주제로 세미나가 열린 가운데 참석자들이 토론을 하고 있다.

강조했다.

젠더앤리더십 김양희 대표는 토론에서 “여성친화도시를 추진하면서 가장 세심하게 신경을 써야 하는 부분이 여성의 특수한 삶의 현실에서 비롯되는 요구를 반영하되 성별 고정관념이나 전통적인 성 역할 고정관념을 강화하지 않도록 접근해야 한다”고 했다.

이날 토론에 참여한 한국여성평등교육진흥원 전길양 부장은 “앞으로도 익산시 여성친화도시 정책이 도시 공간의 물리적 개선에만 집중된

것이 아니라 도시 생활 전반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평가받기를 바라며, 이를 위해서는 많은 사업이 하드웨어 구축이나 일회성 단기사업이 아닌 지속가능한 사업으로 개발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한민국 제1호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된 익산시는 여성화장실 확충, 여성우선 주차구역, 여성친화 시범거리 조성사업 등 하드웨어 프로그램과 함께 임산부 280건관리 서비스 등 다양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 /익산=정영안 기자

새전북신문

2010년 3월 29일 월요일



지난 26일 원광대 숭산기념관에서 열린 '익산시 여성친화도시 지정 1년의 성과와 과제' 세미나에 참석한 시민·공무원 등 150여 명이 그동안의 성과와 앞으로의 정책방향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익산시 제공

여성이 행복한 도시 만들어요

익산시 '여성친화도시' 지정 1주년 세미나... 지속가능 시책 논의

익산시가 여성친화도시 지정 1주년을 맞아 지난 26일 '여성친화도시 지정 1년의 성과와 과제'란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원광대 숭산기념관에서 열린 세미나에는 여성가족부, 시민, 공무원, 각 자치단체 관계자 150여 명이 참석해 지난해 3월 26일 여성친화도시 지정 이후 추진해 온 성과와 앞으로의 정책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주제발표에 나선 이미원 대구 경북연구원 박사는 "1년간 의미 있는 성과는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에 성 주류화 정책을 촉구하는 결정적인 계기를 만들고 전달해 지원 체계를 구축한 것과 주민 인식 확산이라는 구체적인 실행 노력 등이다"고 밝히며 여성친화도시 추진체계의 정비 및

추진 성과관리, 민·관·산·학간 협력체계 구축 등을 발전적 지속과제로 제시했다.

토론에 나선 김은희 걷고싶은도시 만들기시민연대 사무국장은 "여성친화도시란 그동안 배제돼있던 여성들을 도시정책의 적극적 참여자로 전환시키려는 노력이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공간의 소비자이자 생산자로서 주체의 역할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평가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양희 젠더엔리더십 대표는 "여성친화도시를 추진하면서 가장 세심하게 신경을 써야 하는 부분이 여성의 특수한 삶의 현실에서 비롯되는 요구를 반영하되 성별 고정관념이나 전통적인 성 역할 고정관념을 강화하

지 않도록 접근하는 것이다"고 밝혔으며, 전길양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부장은 "앞으로도 익산시 여성친화도시 정책이 도시 공간의 물리적 개선에만 집중된 것이 아니라 도시 생활 전반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평가받기를 바라며, 이를 위해서는 많은 사업이 하드웨어 구축이나 일회성 단기사업이 아닌 지속가능한 사업으로 개발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장성화 전북발전연구원 팀장도 "여성친화도시, 여친공간은 시설물의 정비나 확충과 같은 하드웨어의 정비가 아니라 소프트웨어 즉, 여성을 위한 다양한 도시정책 프로그램을 통해서 나타나야 한다"고 말했다.

/이일권 기자 like@sjbnews.com